

대순진리회의 ‘선화(善化)’사상에 대한 연구

위 궤 칭(于國慶)*

사천대학·부연구원

- | | |
|--------------------------|-----------------------|
| I. ‘선화’사상의 의미 | IV.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 |
| II.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자료 분석 | V. 결론 |
| III.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발생 배경 | |

대순진리회는 한국 신종교 단체의 하나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이후의 글에서는 상제로 약칭한다)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깨달음을 통해 ‘해원상생(解冤相生)·보은상생(報恩相生)’의 진리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대순진리회에서는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인간개조(人間改造)·포덕천하(布德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보국안민(輔國安民)과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대순진리회는 창설 이후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전파되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전경』을 근본으로 하므로, 우선적으로 『전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교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검색을 통해 『전경』 중의 약 50여 곳에서 ‘선(善)’자가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전경』에서는

* 철학박사, 현재 중국 사천대학 도교와 종교문화연구소 노자연구원 부연구원, 석사 연구생 지도연구원, 『노자학간』·『도학연구』 편집부 주임.

인명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선덕(善德)’과 ‘선법(善法)’으로 신도와 민중을 교화하는 사상적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경』에서는 어떻게 선을 드러내고 행하며 더 나아가 선으로 중생을 교육하고 천하를 교화하는가 하는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곧 대순진리회의 핵심 사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상을 ‘선화’사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대순진리회의 전반적인 교리·교의와 서로 연관시켜 볼 때, ‘선화’사상에 관한 내용은 『전경』 속의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즉 분명하게 ‘선’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경』의 많은 내용 중에 ‘선화’의 의미가 뚜렷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교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선을 선양하고 자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하며, 이에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I. ‘선화’사상의 의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선화’사상의 핵심적인 의미와 그 기본적인 이론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경』을 중심으로 한 대순진리회 관련 서적 속에 포함된 ‘선화’사상의 자료를 검색, 정리, 통계, 분석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선화’사상이 지닌 가치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화’사상의 의미와 이론구조를 탐구해 보자.

글자 그대로 '선화'는 '선'과 '화'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문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선'자는 현대의 중국어 문법체계에서 명사·동사·형용사·부사 등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한어대사전(漢語大字典)』에서 총괄한 어의에 근거하면, '선'자는 18가지의 의미가 있다. 즉 길하다, 좋다; 선인(善人), 선행(善行); 정확하다; 섬세하다, 뛰어난다; 정통하다, 능숙하다; 해내다, 잘 처리하다; 온화하고 선량하다, 동정심이 많다; 우호적이다, 친선적이다; 좋아하다, 착하다고 여기다; 칭찬하다; 승낙을 표시; 깨닫다, 숙지하다; 타당하게, 좋게; 크다; 많다, 좋다 등이 관련된 예에 속한다. 선(善)은 또한 선(繕)자와 통용되어 수선하다, 고치다는 뜻으로 쓰이며, 선(膳)과 동일하게 쓰여 음식 혹은 식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성(姓)¹⁾의 의미가 있다. 이와 비교하여 『사원(辭源)』에서는 '선'의 뜻을 아홉 가지로 개괄하여, 좋다, 나쁘다는 뜻과 반대되는 말; 친선, 우호; 좋아하다; 아끼다; 크다, 많다; 정통하다, 잘하다; 개선하다; 닦다; 숙지하다²⁾라 말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선'자의 이러한 의미가 모두 '선'자의 원초적 본뜻에 기원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선'은 회의글자로 여겨져 양(羊)과 언(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선은 길하다. ... 아름답다[美]와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다. 단옥재(段玉裁)의 주석을 보자면 “아부(我部)에서는 의(義)와 선이 동일한 뜻, 양부(羊部)에서는 미(美)와 선이 동일한 뜻이다. 양을 따르니 상서롭다[祥]. 그러므로 세 글자(義, 善, 美)가 양에서 시작되었다”라 하였다.³⁾ 이로써 '선'자는 원래 상서롭다,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글자의 근원에서 보면, '선'자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유명한 한자학 연구자인 백천정(白川靜) 선생은 '선'자의 원래 글자가 바로 양(羊)과 경(言)이 조합된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중

1)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湖北比書出版社·四川辭書出版社, 1992), p.278.

2) 『辭源』 1-4 合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88), p.286.

3)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p.102.

에서 양은 신판(神判)을 행할 때 쓰는 ‘해천(解薦: 죄가 있고 없음을 잘 식별하는 짐승)’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시비(是非)와 곡직(曲直)을 판별하는데 쓰였다. 해천은 곧 양과 비슷한 신성한 짐승을 가리킨다. ‘경(諍)’은 언(言)을 중복해서 쓴 것이다. ‘언’은 원래 신에게 기도하는 말을 적은 종이를 담은 그릇(卮)이라는 의미에 ‘신’(辛, 목형에 쓰는 손잡이가 달린 큰 바늘)이 더해진 것이다. 이는 신령에게 기도할 때에 만약 진실하지 않으면 기꺼이 목형의 벌을 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며, 신에게 맹세하는 말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경(諍)’은 신판을 행할 때에 신에게 맹세하는 원고와 피고를 나타낸다.

이로써 ‘선’자의 원래 뜻을 정리해보면, 해천의 양옆에 두 사람의 맹세의 말이 있으니 ‘선’이 원래 법정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신의 뜻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발전하여 ‘선’이라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어의가 발전하여 ‘좋다, 정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⁴⁾ 그러므로 선의 원시적인 뜻에는 공평한 판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자의 본래 뜻에는 ‘좋다, 상스럽다, 뛰어난다, 칭찬(찬동)하다, 공평하다’는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시기 인문정신이 향상되고 민중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을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덕화의 측면에서 이해하게 됨으로써 ‘선’이 단순한 단어의 의미에서 벗어나 중요한 사상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서경』·『역경』·『국어』·『논어』 등의 서적에서도 공통적으로 ‘선’사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선을 쌓지 않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⁵⁾

선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⁶⁾

천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준다.⁷⁾

4) 白川靜 著, 蘇冰 譯, 『常用漢字解』(北京: 九州出版社, 2010), p.270 참조.

5) 『周易』, 「坤卦·文言」,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33.

6) 『國語』, 「晉語·衛文公不禮」, 李維琦 標點, 『國語·戰國策』(長沙: 岳麓書社, 1988), p.94.

7) 周秉鈞, 『白話尚書·湯誥』(長沙: 岳麓書社, 1990), p.276.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돕지만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찬시하는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장 근접한다.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을 편안히 여겨야 하고, 생각을 품을 때는 물처럼 깊어야 하며, 타인을 대할 때는 물의 인(仁)을 본받아야 하고, 말을 할 때는 물처럼 진실해야 하며, 다스림은 물의 바름에 근거해야 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물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행동할 때는 물처럼 때를 기다려서 움직여야 한다. 물은 만물과 다투지 않으므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⁸⁾

그러므로 물은 지극히 아름답고 또한 지극히 선하다.⁹⁾

이러한 내용과 후세 사람들이 선을 활용한 내용을 개괄해 보면, '선'이 전통문화에 내포된 윤리학·철학·문화학의 의미와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화(化)'는 '선화' 사상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용어인데, '화'에 대한 의미는 『주역』 「비괘·단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천문을 관찰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교화하여 다스린다”¹⁰⁾는 뜻은 인문으로 천하민중을 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천하를 크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화'는 교화, 변화를 의미한다.

'선화'는 '선'과 '화'가 서로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표면적인 뜻은 선으로써 교화한다는 것이다. 단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선'과 '화'는 수식관계로서, 전자는 '화'의 주요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선화'는 기타의 다른 교화이론과 시교법문(施教法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 형태의 서로 다른 문화전통 속에서 교화의 이론사상과 시교법문은 형식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내용상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화'는 비록 전통적 교화이론과 시교법문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지만, 기타의 교화이론 혹은 시교법문과

8) 王弼, 『老子注』 第8章, 『諸子集成』 第3册 (北京: 中華書局, 1954), pp.4-5.

9) 程樹德, 『論語集釋·八佾下』 第1册 (北京: 中華書局, 1990), p.222.

10) 『周易』, 「賁卦·彖傳」,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188.

다르게 선을 중심으로 하여 교화의 출발점과 핵심 내용이 전개된다. 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선화는 선의 학문과 수양 측면에서만 탐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론을 활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교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진선미(眞善美)’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선’은 존재윤리학·철학·종교 신학과 문화학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차원의 인지와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른바 ‘선화’사상도 다양한 이론구조를 갖는다. 다시 말해, ‘선화’사상을 완전하게 체계화하는 데에는 적어도 아래의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윤리적 의미에서의 ‘선’과 이로부터 파생된 ‘선화’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즉 ‘선화’는 도덕적 의미에서 만물을 도와서 교화시키거나 만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선화’의 근본 사상이다. 둘째, 철학방법론상으로 뛰어났다, 능숙하다 등의 뜻을 지닌 ‘선’과 이로부터 발전된 ‘선화’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즉 ‘선화’는 상선(上善)의 덕 외에도 상선의 법이 필요한데, 이는 ‘선을 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법칙을 지키는 실천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셋째,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선’은 윤리도덕의 단계를 초월한다. 이때 ‘선화’의 목적과 수단이 하나로 융합되므로 이때의 ‘선화’는 마치 “소리도 없이 만물을 적시는” 것과 같다. 이는 만사만물이 일상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감화되어 화협과 대동의 경지를 실현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달게 여기고,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며,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¹¹⁾ 진정한 지상천국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으로 ‘선화’사상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핵심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충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선화’사상의 체계를 완전하게 구성하고 있다.

11) 王弼, 『老子注』 第80章, 『諸子集成』 第3冊, (北京: 中華書局, 1954), p.47.

II.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자료 분석

『전경』에 언급된 '선화'사상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직접 '선'자를 사용하여 설명한 자료이다. 둘째는 비록 '선'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선화'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셋째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지만 분석을 통해 '선화'사상의 함의를 채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래에서 필자는 상술한 세 가지 종류의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앞서 검색을 통하여 『전경』 속의 약 50여 곳에서 '선'자를 언급하였음을 발견하였으며, 인명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선덕(善德)'과 '선법(善法)'으로 신도와 민중을 교화하는 사상적 취지를 나타내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거론하고자 한다.

혹 선한 것도 있고 혹 나쁜 것도 있는데 선한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고친다.¹²⁾ (이 구절에서의 '선'은 선덕과 선법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느니라.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¹³⁾ (여기서의 '선'은 선덕과 선법의 뜻을 나타낸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

1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전경』,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45. 아래의 인용 또한 본 판본과 동일하다.

13) 같은 책, p.235.

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¹⁴⁾ (본 단락에서는 ‘선덕’을 강조하였다.)

스물네 가지 약종만을 잘 쓰면 만국 의원(萬國醫員)이 되리라.¹⁵⁾ (이 구절에서는 ‘선법’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거론한 단락 외에, 직접 ‘선’자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선화’ 사상과 관련된 『전경』의 내용은 매우 많다. 즉, 앞서 ‘선화’사상에 대해 분석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비록 ‘선’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경』의 여기저기에 ‘선화’의 의미가 매우 짙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경』에 근거하여 통계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 명	‘선’자를 쓰지 않았지만 ‘선화’사상이 분명히 드러난 장절	통 계
행 록	1장 11절, 2장 15절, 22절, 3장 8절, 44절, 4장 29절, 34절, 5장 38절	7곳
공 사	1장 5절, 32절, 2장 17절, 19절, 24절, 3장 4절, 5절, 17절, 39절	9곳
교 운	1장 2절, 9절, 16절, 17절, 26절, 32절, 34절, 36절 2장 7절, 15절, 32절, 33절, 41절, 59절	14곳
교 법	총 3장 가운데 절대 다수의 절에서 ‘선화’사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다수
권 지	1장 7절, 8절, 26절, 2장 24절	4곳
제 생	의법의덕(醫法醫德)과 선법선덕(善法善德)이 서로 결합된 내용이다. 다수의 장절은 구체적인 직업과 영역에 대한 ‘선화’사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수
예 시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7절, 55절, 72절, 81절, 82절	12곳

이상의 통계를 통하여 우리는 ‘선화’에 대한 내용이 『전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아래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들고, 나머지 내용은 관련 내용을 분석할 때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14) 같은 책, p.258.

15) 같은 책, p.341.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 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으실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¹⁶⁾ (본 단락에서는 상제가 널리 만물을 사랑하는 선덕과 약한 자를 애호하는 선법을 행함을 분명히 밝혔다.)

상제께서 천원(川原)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 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네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으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 후에 상처가 완전히 나았도다.¹⁷⁾ (본 단락에서는 선법과 그 효력에 대해 명확히 논하였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¹⁸⁾ (본 단락에서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선화'를 초월하여 만사만물이 부지불식간에 원한을 풀어 복을 받도록 하고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혔다.)

16) 같은 책, p.3.

17) 같은 책, pp.261-262.

18) 같은 책, p.343.

직접 ‘선’자를 써서 ‘선화’사상을 나타내거나, 비록 ‘선’자를 쓰지 않더라도 ‘선화’사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외에, 『진경』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은유적인 사례와 어휘를 사용하여 ‘선화’사상을 나타내었다. 『진경』의 「제생」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제께서 처음으로 의법(醫法)을 화정동(花亭洞)에서 베푸셨도다. 이 경오(李京五)는 화정동에 사는 사람이라. 어느 날 그와 친분이 있는 박 금곡이란 대원사(大院寺) 주지가 경오의 신병을 아뢰고 심방을 상제께 간청하므로 상제께서 그의 병세를 보시니라. 왼쪽 발가락이 저리고 쭈시며 오후부터 새벽까지 다리가 부어 기둥과 같이 되는지라. 그러나 그 부기가 아침에는 내렸다가 정오경에 원상대로 회복되다가도 오후에 붓기 시작하느니라. 이 증세가 三·四년 계속되어 이제 촌보를 옮기지 못하고 앉은뱅이 노릇을 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진맥하시기를 「진실로 괴상한 병세로다. 모든 일이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나니라. 내가 이 병으로 표준을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 상제께서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시니라. 경오가 명하신 대로 하니 곧 나으니라.¹⁹⁾

이 단락은 본래 상제가 이경오(李京五)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관한 내용인데,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필자의 부족한 견해에 근거하면,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의 암시가 존재한다.

첫째, 상제께서 사람을 위해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환자의 귀천(貴賤)을 구분하지 않았고, 병세가 괴이함을 트집 잡지 않았으며, 친히 환자를 위해 애써 치료하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았다.(상제께서 환자를 위해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는 것”을 말한 부분에서 상제가 진실로 환자를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상제의 선덕과 선행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제를 숭배하고 존경하게 된다. 이로

19) 같은 책, p.301.

써 상제의 선덕이 담긴 신념과 행동을 본받고 배울 수 있다.

둘째, 상제께서는 사람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심리를 치료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계기로 천하의 질병을 치료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곧 “모든 일이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나니라. 내가 이 병으로 표준을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상제께서는 천하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치료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상제께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범인을 초월하였다. 또한 선법(善法)의 각도에서 볼 때, 상제께서는 항상 큰 도리와 작은 일을 서로 결합시켜 성격과 정신의 경지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리를 깨닫게 하셨으며, 이로써 선덕과 선법을 결합하여 세상 사람들을 선화하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는 단지 한 가지 예로서 『전경』 중에 ‘선화’사상을 분명히 논술한 예가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선화’사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표면적으로 ‘선화’사상이 확연히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각도에서 문제를 인식해 볼 때, 문장 중에 내재된 ‘선화’의 취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전경』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일이 예를 들어 분석하지 않겠다.

Ⅲ.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발생 배경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교의 속에서 ‘선화’사상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적 내용을 논술하기 전에, 선화 사상이 발생한 연유와 경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아래의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상천국을 건설 한다’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에서 볼 때 ‘선화’사상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목적(目的)은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인간개조와 포덕천하·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 건설이다”²⁰⁾라 하였다. 『대순지침』에서 언급한 ‘목적’을 분석해보면, 무자기, 정신개벽, 인간개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일곱 가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무자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난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는 모두 ‘선화’의 내용에 포함된다. 「교운」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정신개벽’은 ‘무자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²¹⁾ 『전경』의 「행록」·「공사」·「교운」 중의 내용을 통해 ‘정신개벽’이라는 말 속에 ‘선화’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화’사상이 대순진리회의 중요한 사상임을 말해 주는 근거이다.

둘째, 대순진리회 목적의 실현은 그 종지와 신념에 의거한다. 『전경』에서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 대순진리회의 종지라 하였는데, ‘합덕·조화·해원’이라는 말 속에는 ‘선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를 신조로 삼고 있는데,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와 ‘성(誠)·경(敬)·신(信)’에는 말할 것도 없이 ‘선화’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도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수도와 공부의 필요성과 규범 속에서 ‘선화’와 연관되는 내용이 자주 언급됨을 볼 수 있다. 이에

20)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지침』,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4. 아래의 인용 내용 또한 본 판본과 동일하다.

21) 『전경』, p.210.

관한 내용으로 “포덕은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 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이다”, “포덕(布德)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²²⁾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체창생기 위한 대인접촉이다”²³⁾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어구 외에도, ‘수도·공부’와 관련된 『대순지침』 제2편에는 ‘선화’의 취지를 내포한 구절이 많다. 둘째, 『전경』 중에 언급된 상제와 도주 조정산(趙鼎山)의 창교(創敎)나 선교(宣敎) 등 구체적인 실례에서도 ‘선화’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계묘년도 저물어 가고 추수가 끝나 농부들이 벼를 들에서 말리기에 바쁘지라. 상제의 부친도 벼를 말리기 바쁘고 새와 닭을 쫓기에 애를 쓰느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새짐승이 한 알씩 쪼아 먹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니 사람을 먹일 수 있겠나이까」고 말씀하시면서 만류하셨도다.”²⁴⁾ 등의 내용이 있다. 이러한 실례 속에는 ‘선화’의 두 가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상제가 바로 상선(上善)의 모범과 본보기가 되어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상선의 지덕(至德)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경』에서는 상제의 사적(事迹)을 기록하는 외에, 수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상제의 덕과 행위를 본받아야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예는 『전경』 등 대순진리회 관련 서적과 자료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화’사상이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교의 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제와 도주의 행위 속에 ‘선화’사상이 녹아 있음으로써, 도를 배우는 자가 부지불식간에 교화되어 ‘선화’의 사상과 행위를 받아들이고 본받게 된다.

22) 『대순지침』, p.6.

23) 같은 책, p.7.

24) 『전경』, pp.24-25.

IV.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

필자는 제1장의 분석을 통해 완전한 ‘선화’사상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1)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내재적 속성과 효용성의 문제. (2)‘선을 행하는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법칙’의 실천방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 (3)최종 목표인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 등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대순지침』 제2편 제1장 제5절 <신앙의 3대 원칙에 따라 수행하라>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포덕(布德)·교화(教化)·수행(修行)’ 또한 위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과 이론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서는 무엇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 배양과 실천을 중시한다. 『대순지침』 제2편에는 도인의 ‘수도와 공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제1장 <바른 수도생활> 중의 첫머리에서는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²⁵⁾라 하였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대순진리회 중지의 하나인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수도의 전제와 요지를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로 개괄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을 중요시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윤리도덕적인 선이 중요시 되었을까? 『대순지침』에서는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25) 『대순지침』, p.17.

26) 같은 책, p.22.

이론적으로 볼 때, 우주만상의 시원과 생성변화의 법칙은 바로 도에 있으니 세상이 형성된 뒤의 인간세상에서는 화해평등이나 따스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인성으로 인해 여전히 서로 옥신각신하며 상대를 속인다. 다시 말해, 세상의 선악 형성은 원초적 심성과 선악의 인성(人性)에서 발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곧 인간세계의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도덕윤리에 부합하는 선심(善心)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이론의 기초 위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를 지침으로 삼아 도덕선심을 배양하여 이로써 포덕교화의 전제와 원칙을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3)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²⁷⁾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성의 부정적 측면을 제지하지 못하므로 수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게 된다. 『전경』에서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²⁸⁾라 하였다. 이른바 “사상이 엇갈린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은 때로 사욕으로 가득하므로 상호 간에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가 어렵고, 심지어 서로 다투고 해침을 말한다. 이렇게 원한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온 세상에 원한이 맺히게 되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경』에서는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27) 같은 책, p.8.

28) 『전경』, p.125.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²⁹⁾라 하였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윤리도덕의 선을 실천하는 법문(法門)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법문은 선을 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사욕을 위한 선행은 위선적 행위가 될 뿐이며, 이는 악행보다 더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상제께서 十二월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고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광찬·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황 응중·신 경수 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 주시고 또 「본래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十二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들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³⁰⁾

위의 내용을 통해 동학 총대를 지냈던 차경석(車京石)은 겉으로 보국안민을 주장하였으나, 그가 ‘십이 제국’을 원하는 것을 볼 때, 실제로는 왕후장상을 꿈꾸는 사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 상제께서 차경석의 사심을 간파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경』에서는 차경석의 ‘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29) 같은 책, p.322.

30) 같은 책, pp.117-118.

라, 그의 사욕으로 인해 수만의 사람들이 헛되이 목숨을 잃음을 말함으로써, '사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행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 해악이 악행을 넘어섬을 설명한다. 이는 대순진리회 '선화' 사상 속에 내재된 큰 가치를 지닌 이념으로서, 우리 모두가 거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내용이다.

다음으로, 선의 목적을 바르게 한 뒤에, 선을 행하는 방법이 옳은지의 여부 또한 중요시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좋은 바람이 반드시 선의 실제효과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행(善行)과 선과(善果) 사이에 반드시 등호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행으로 선과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의 법이 옳음을 보증해야 한다. 선을 행하는 법은 바로 선을 실천하는 방법과 원칙이다. 한 개인이 선을 행하여 남을 돕거나,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거나, 타인이 선행을 하도록 권하거나, 세상을 선화(宣化)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이에 속한다. 대순진리회의 서적과 관련 자료를 볼 때, 이러한 방법과 원칙은 주로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한다. 하나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직업과 관련된 것이다.

이른바 보편적 의미를 가지는 선행의 법은 보편적 적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방법론의 관점에서 각각의 영역과 차원이 모두 보편적 의미를 가진 '선을 권하고 선을 행하며[勸善行善] 악을 물리치고 악을 버리는[祛惡棄惡]' 방법과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선행의 법에 대해서 대순진리회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선을 행할 때는 상대의 이로움을 구할 뿐이지 자신의 명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상제께서 타인에게 도움을 베푸셔도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일을 언제나 마땅치 않게 여겨 오던 형령이 상제께 아뢰기를 「상제께서 자식을 태어주시고도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시오니 무슨 까닭이오니까.」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타인이 알아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느니라. 타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소인이 하는 일이니라.」”³¹⁾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³²⁾라 하였다. 이러한 선화원칙은 선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명리(名利)를 탐하지 말고 다만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을 것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음덕’의 원칙이라고 약칭할 수 있다.

(2) 선을 행하려면 귀천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존귀한 자를 좋아하고 비천한 자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선행법칙은 『전경』 속의 여러 곳에서 언급된다. 예를 들면 「교법」 1장 2·9·10·24절과 2장 11절, 3장 1·4절 및 「교운」 1장 32절 등이 이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선화원칙에서는 고귀한 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비천한 자를 동정하고 도와줄 것을 강조하였다.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³³⁾는 것은 상제께서 이를 실천하셨음을 나타낸다. 이는 곧 『전경』에서 말한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³⁴⁾라는 내용과 연관된다.

(3) 선을 행하려면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선화원칙에서는 선행 대상의 차이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 선을 행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합당한 방법을 취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는데, 그 중 하나는 권화(勸化)의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이냐”³⁵⁾라 하였다. 다른 하나는 ‘권화’ 대상이 ‘권화’를

31) 같은 책, p.261.

32) 같은 책, p.250.

33) 같은 책, p.234.

34) 같은 책, p.234.

받아들이는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선화의 법이 그 효용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전경』 구절로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평 터이다”³⁶⁾라는 내용이 있다.

(4) 선을 행하려면 여러 방법을 병용해야 하고, 특히 말을 선하게 해야 하며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전경』에서는 “남에게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나니라”,³⁷⁾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 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³⁸⁾라 하며 언덕을 잘 가질 것을 말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언덕’이 선화원칙의 하나로써 도인의 심성이나 품행과 연관된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은 덕을 쌓을 수 있고 악한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보았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³⁹⁾라는 말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5) 대순진리회에서는 선을 행하면 선보(善報)를 얻고 악을 행하면 악보(惡報)를 얻는 선악감응의 원칙을 중시한다. 선악감응의 원칙은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전경』의 10여 곳에서 선악감응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였다.⁴⁰⁾ 선악감응의 원칙은 사람이 선악을 행하는데 따라 신령의 감찰과 상벌

35) 같은 책, p.119.

36) 같은 책, p.258.

37) 같은 책, p.238.

38) 같은 책, p.247.

39) 같은 책, p.235.

40)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교법 1장 11·19·25·29절, 2장 17·20·30·44·50절, 3장 24·44절 참조.

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선보와 악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느니라”⁴¹⁾와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⁴²⁾는 모두 이와 연관된 내용이다.

(6) 선을 행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중생을 사랑해야 하며, 널리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전경』에서는 ‘해원상생’의 진리를 행하는 대상이 우주 중에 예로부터 존재했던 일체의 사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선으로 교화하고 나아가서 지상천국의 목적을 실현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또한 상제의 구체적인 사적(事迹)을 통해 곤충·물고기·새·짐승이나 천지만물에 대해서도 선을 베풀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전경』에서는 상제가 호생(好生)의 덕이 깊어 약한 곤충을 사랑하고, 새와 짐승의 해원(解冤)을 도우며, 소들이 싸우지 않도록 화해하기를 권하는 등의 실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듯 만물을 사랑하는 선화원칙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선화원칙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에서는 타인을 비방하지 말고, 덕으로 원수를 대할 것이며, 조화를 귀하게 여기고 다툼에 반대하며, 스스로 반성하여 참회하는 등 다른 많은 원칙을 언급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선행의 법은 보편적 의미 외에도, 구체적인 직업이나 영역과 관련된 방법을 포괄한다. 구체적인 선행의 법은 구체적인 직업 및 영역과 연관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그 중에 내포된 여러 가지 선행의 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순진리회가

41) 같은 책, p.239.

42) 같은 책, p.256.

언급한 구체적인 선행의 법에는 (1) 가족과 연관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는 가정 속에서 행하는 선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 비교적 많은데, 이는 부부간, 부자간, 형제자매간 등에 연결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선행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전경』 「교법」의 네 곳 이상에서 이러한 법에 대해 언급하였다.⁴³⁾ 이는 『대순지침』 제2편 제1장의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는 것”과 호응되는데, 이러한 선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며, 부모의 원망을 해결해야 할 것 등을 말한다. (2)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남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남을 속이지 말 것이며, 이익을 탐하거나 싸우지 말고, 남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며, ‘예’로써 남을 대해야 한다는 등의 선을 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⁴⁴⁾ “너희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⁴⁵⁾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그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니라.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오.”⁴⁶⁾ 등은 이와 연관된 내용이다. (3) 교육방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선행을 기르는 것으로 교육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속에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웅패의 술이로다. 어찌 함당하다 하리오.”⁴⁷⁾ 이로 볼 때, 『전경』에서는 시비(是非)의 핵심이 웅패(雄霸)의 술수에 속하므로, 아

43) 같은 책, 교법 1장 40·42·44절, 3장 15절 참조.

44) 같은 책, p.240.

45) 같은 책, p.243.

46) 같은 책, p.244.

47) 같은 책, p.251.

이들로 하여금 선애(善愛)의 마음을 잃게 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경』의 내용으로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역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⁴⁸⁾가 있다.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에서 세상의 교육이 공리(功利)를 추구하여 선을 구하는 단서를 잃으므로써 이후의 결과가 심히 우려됨을 말하였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⁴⁹⁾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에서는 노름과 여색을 경계할 것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옛날의 예법에 정확히 대응하는 등 구체적인 선행의 법을 제시하였으니, 흥미 있는 독자는 스스로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고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수도의 최종 목적인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 등을 추구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윤리도덕의 선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경』 중의 많은 부분을 통해 선화사상이 나타내는 핵심인 ‘선덕’과 이로부터 발전된 ‘선행선법(善行善法)’이 결국 윤리도덕의 차원을 초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지침』에서는 “앞으로의 선경 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 도는 포덕이라 한다”⁵⁰⁾라 하였다. 이로써 선화의 말뜻에 근

48) 같은 책, p.152.

49) 같은 책, p.152.

50) 『대순지침』, p.22.

접한 ‘포덕(布德)’이 “선경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주는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선덕’을 행하는 것이 곧 미래의 선경세계에 동참하는 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전경』과 『대순지침』 등의 논술에 근거해 볼 때, 이는 윤리도덕을 나타내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우주의 화육을 이루는 근거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윤리도덕의 차원을 초월하였다. 즉 이론적 근거와 수도의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선경을 건설하는 길”은 윤리 도덕적 의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순지침』에서는 “도는 우주만상의 시원이고 생성변화의 법칙이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도 속에서 생성과 존재 한다”⁵¹⁾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도’로부터 비롯된 선덕(즉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방법)과 ‘해원상생(解冤相生)·보은상생(報恩相生)’의 양대 진리는 궁극적 경지 및 도와의 합일성을 나타낸다. 또한 도는 세계 생성변화의 근원적 의미와 근본법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선덕’을 핵심으로 하고 ‘선행선법’을 범문으로 하는 ‘선화’사상은 도와 합일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와 사상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화’사상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볼 때, ‘선덕’이 나타내는 것은 ‘도’로부터 비롯된 자연의 법칙이며, 윤리 도덕적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도인 혹은 수행자는 대도(大道)의 법칙을 준수하는 뜻에서 선을 실천하는 것이며 윤리 도덕의 목적만을 위해 선을 받들고 봉행하는 것은 아니니 윤리 도덕적 측면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순지침』에서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이 광구천하(匡救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을 통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음을 언급하였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광구천하·광제창생은 윤리도덕의 중요한 내용에 속할 뿐만 아니라 가장 높고, 크며, 넓은 차원의 윤리도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이 가

51) 같은 책, pp.22-23 참조.

능하다. 즉 대순진리회에서는 ‘원한이 쌓여 세상이 혼란에 빠짐’으로써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없었다고 보고,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방법이 ‘해원과 보은’에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주요 방법인 ‘해원상생’과 ‘보은상생’ 및 이로부터 제시된 ‘광구천하·광제창생’ 등 구체적인 방법이 현세윤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주가 질서를 잃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원의 방법’은 윤리도덕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며 윤리도덕의 이론구조를 초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우리가 ‘해원의 방법’이 윤리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로써 대도(大道)로부터 비롯된 ‘선덕과 선법’은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대도(大道)로부터 생성된 ‘선덕과 선법’은 순리자연의 이법을 근본으로 삼기에 만물을 크게 이롭게 하는 과정 속에 ‘선을 추구하는’ 관념조차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상천국’이란 무엇인가? 대순진리회 관련 서적과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많은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상천국’은 곧 사욕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귀천존비(貴賤尊卑)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며, 원한이 없고, 원한으로 야기되는 분쟁이 없으며, 의식이 풍족하여 굶주림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으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⁵²⁾라 하였다. ‘지상선경을 건설’하는 것은 ‘선

52) 『전경』, p.343.

화'사상의 여러 방식과 방법을 포괄한다. 이는 윤리 도덕적 교화의 의미를 지니지만,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진정한 '선화'는 드러나지 않는 도덕과 설교 속에 존재할 수도 있다(상제께서는 누차 이를 음덕이라 불렀다). 다시 말해, 늘 은혜를 베풀지만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로움을 누리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감화되어 보은에 대해 생각하게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상천국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천하가 화목해지고, 지상선경 건설의 목적 또한 실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날마다 서로 선덕(善德)과 선은(善恩)을 베풀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을 순리 자연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늘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은덕에 보답해야 함을 애써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선덕과 선법'은 윤리 도덕적 교화의 차원을 초월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은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 대한 기본적 이론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이 여기에 한정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실천할 많은 여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층 더 심화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姜聖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 교리교의·입세이념·시교법문·수행법칙 중에 '선화'(선이 세상 사람을 교화한다)사상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는 『전경』을 중심으로 한 관련 서적과 자료 속에 '선화'

사상에 대한 언급이 무수히 많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선의 윤리 도덕적 의미와 윤리 도덕적 차원을 초월하는 선의 의미 및 구체적인 선화의 법으로써 대순진리회 교의 중에 포함된 선화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전형적이고 신성한 종교 도덕적 특징과 일상생활의 의미가 담긴 사회 윤리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윤리를 초월하고 진선(盡善)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의식과 이론적 깊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이론적 연구 주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실천과 응용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 대한 연구는 색다른 각도에서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특색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선화’사상 속에 나타난 지혜와 선화를 행하는 다양한 방법은 사회자선과 사회통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大巡真理会“善化”思想研究

于国庆*

四川大学·副研究员

- | | |
|-----------------------|--------------------|
| 一、“善化”思想的内涵 | 四、大巡真理会“善化”思想的主体内容 |
| 二、大巡真理会“善化”思想材料的技术性分析 | 五、结语 |
| 三、大巡真理会论及“善化”思想的缘由 | |

大巡真理会是韩国新宗教团体之一，其以“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后文中简称上帝）为信仰对象，主张通过解悟并践行“解冤相生、报恩相生”两大真理，致力于无自欺、精神开辟、人间改造、布德天下、广济苍生、辅国安民和建设地上天国。大巡真理会自创教以来，在韩国民众中迅速传播，影响甚巨。

大巡真理会以『典经』为根本指导，从这个角度来说，把对『典经』的研读和理解作为认识大巡真理教理教义的主要途径之一，无疑是一种事半功倍的方法。笔者在研读『典经』的时候，通过检索发现，其约五十余处提到了“善”字，除了人名之外，其多处体现了一种以“善德”和“善法”来教化信徒和民众的思想旨趣，可见，如何扬善与行善，进而以此教育群生、化成天下，成为以『典经』为重要依据的大巡真理会的重要内容。在此，笔者把围绕这些内容所形成的思想称之为“善化”思想。

* 1977年生，哲学博士，现为四川大学道教与宗教文化研究所、老子研究院副研究员，硕士研究生导师，『老子学刊』、『道学研究』编辑部主任。

除此外，笔者将之与大巡真理会其他教理教义相联系，发现『典经』中矣涉“善化”思想的文辞几乎随处可见，尽管这些地方没有明显使用“善”字，但是字里行间所蕴含的“善化”意味亦是非常浓厚。由此，对这些内容进行研究，不仅有助于我们加深对大巡真理会教理教义的理解，同时也有助于我们探究今天社会之止恶扬善教化以及推行慈善事业的可行之策。有鉴于此，本文以此开篇立论，就教于方家。

一、“善化”思想的内涵

理解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有两个前提，一是弄清楚“善化”思想的核心内涵及其基本理论框架，二是对以『典经』为代表的大巡真理会的典籍中矣涉“善化”思想的材料做一检索规整、统计分析等技术性处理，而后在这两个前提下诠释和解读其“善化”思想与巨大价值。

因此，我们有必要首先对“善化”思想之内涵和理论框架做一探究。



顾名思义，“善化”乃是一个合成词，其由“善”和“化”二字构成。从文字学的角度来看，在今天的汉语语系中，“善”字在词性上主要有名词、动词、形容词、副词等形式的使用；而从字义来看，根据『汉语大字典』中的总结，“善”字主要有十八种含义：吉祥，美好；善人，善行；正确；工巧，高明；擅长，会；做好，处理好；和善，慈善；友好，亲善；喜爱，认为善；赞许；表示应诺；领悟，熟悉；妥当地，好好地；大；多，好；通“缮”，修治；同“膳”，膳食，姓。¹⁾与之相对，『辞源』则概括“善”之字义为九种：美好，恶之反；亲善，友好；喜好；爱惜；大，多；擅长，善于；改善；揩拭；熟悉。²⁾

不少学者认为，“善”字的这些含义，均是发源于“善”字的原初本义，一

1) 汉语大字典编辑委员会：『汉语大字典』（湖北此书出版社、成都：四川辞书出版社，1992年），第278页。

2) 『辞源』1-4合订本（北京：商务印书馆，1988年），第286页。

般来说，“善”是个会意字，从羊，从言，『说文解字』中解释称：“善，吉也，…此与义美同意。”段玉裁注释时认为：“我部曰，义与善同意。羊部曰，美与善同意。按羊，祥也。故此三字从羊。”³⁾可见，善字，原初即具有吉祥、美好之义。

从字源上看，“善”字可以追溯至甲骨文的和金文的，著名汉字学研究者白川静先生指出，善字的原字乃是“羊”与“言”组合之形。其中，羊乃是神判时所用的似羊的神兽“解廌”，其主要在于辩是非曲直；“言”则是二言，其中，“言”乃是“言”（放置向神祷告的祷辞的器皿）上加“辛”（黥刑用带把手的大针），向神灵祈祷时若有不诚，将甘受黥刑之罚，即向神发出的誓言，“言”表示神判时向神发誓的原告和被告，由此，善的本字表示解廌两旁二人发出的誓言，可见，善原为法庭用语，后来符合神意谓“善”，进而有了良好、正确之义。⁴⁾由此可见，善的原始义还隐含有公平评判之义。总起来看，“善”字之本初义即有美好、吉祥、擅长、赞许、公平等内涵。

先秦时期，随着人文精神的提升和民众文化水平的增长，对于“善”的知性认识和德化理解，使之由单个语词渐渐演化成为一个重要的思想概念，不少典籍，诸如『书』、『易』、『国语』、『论语』等，纷纷对“善”思想做了一定程度的论述：

积善之家，必有余庆；积不善之家，必有余殃。⁵⁾

善，德之建也。⁶⁾

天道福善祸淫。⁷⁾

上善若水。水善利万物而不争，处众人之所恶，故几于道。居善地，心善渊，与善仁，言善信，正善治，事善能，动善时。夫唯不争，故无尤。⁸⁾

尽美矣，又尽善也。⁹⁾

3) 许慎撰、段玉裁注：『说文解字注』（郑州：中州古籍出版社，2006年），第102页。

4) 参见白川静著、苏冰译：『常用汉字解』（北京：九州出版社，2010年），第270页。

5) 『坤卦·文言』，黄寿祺、张善文：『周易译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年），第33页。

6) 『国语·晋语·卫文公不礼』，李维琦标点：『国语·战国策』（长沙：岳麓书社，1988年），第94页。

7) 周秉钧：『白话尚书·汤诰』（长沙：岳麓书社1990年），第276页。

8) 王弼：『老子注』第8章，『诸子集成』，第三册（北京：中华书局1954年），第4-5页。

9) 程树德：『论语集释·八佾下』，第一册（北京：中华书局1990年），第222页。

总括这些内容以及后世对善的运用，可以发现，“善”在传统文化中具有深刻的伦理学、哲学和文化学内涵。

“化”是“善化”思想的第二个重要用语，此处“化”的含义，出于『周易·贲卦·彖传』：“观乎天文，以察时变；观乎人文，以化成天下。”¹⁰⁾意思是，以人文来教化天下民众，最终大治天下。可见，化的意思是教化、变化之意。

由此，“善”和“化”相合而成“善化”，其字面意思是以善来教化。若按照构词方式来分析，“善化”中的“善”与“化”一词乃是偏正关系，前者规定了“化”的主要手段，即“善化”具有其他教化理论和施教法门所不同的独特含义。我们知道，各种文化传统中，教化理论思想与施教法门形式上多姿多采，内容上不尽统一，而“善化”虽是传统教化理论和施教法门的一个重要组成部分，但不同于其他分支，其教化的主要出发点和着眼点在于围绕“善”而展开。后者则意味着“善化”所探究的不仅仅是善的问学与修养，更在于通过运用善的理论而实现教化世人的目的，进而在更大视域与境界上与“真善美”之终极目标达成契合统一。

与此同时，由于对“善”的理解存在伦理学、哲学、宗教神学和文化学等不同视角和层次上的认知与践行，因而，所谓的“善化”思想也具有不同的理论建构，换言之，作为一个完善而又系统的“善化”思想体系，其至少存在以下三个方面：第一，作为伦理意义上的“善”以及由此而来的“善化”。也即为“善化”势必应该具有道德意味上的辅化万物、善利万物的属性功用，这是“善化”的根本立足点；第二，作为擅长、善于等哲学方法论上的“善”以及由此而来的“善化”。也即为“善化”除了上善之德外，还需要上善之法，也就是既符合“为善之目的”又遵循“行善之法则”的践行方法和途径。第三，作为最高层次意义上的“善”则超出了伦理道德的层次，其将“善化”的目的和手段巧妙融为一体，这个时候的“善化”，宛若“润物细无声”一般，在万事万物日用受益而不知中潜移默化地实现了人间和谐大同的境地，使得处于其中的世人“甘其食，美其服，安其居，乐其俗”¹¹⁾，真正实现了地上天国的目标。

10) 『贲卦·彖传』，黄寿祺、张善文：『周易译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年)，第188页。

11) 王弼：『老子注』第80章。『诸子集成』，第三册(北京：中华书局，1954年)，第47页。

以上“善化”思想的三个方面侧重点不同，但相互联系，互通互促，构建了“善化”思想的相对完整体系。

二、大巡真理会“善化”思想材料的技术性分析

『典经』中论述“善化”思想的资料可以分为三种情形：一是直接使用“善”字来阐发的资料；二是虽未使用“善”字但是明显具有“善化”思想的资料；三是较为隐晦、但是经过解读可以体味出其中具有深刻“善化”思想的资料。下面，笔者就对上述三类资料做一技术性分析。

笔者前面提到，通过检索发现，『典经』中约五十余处提到了“善”字，除了人名之外，其多处体现了一种以“善德”和“善法”来教化信徒和民众的思想旨趣，笔者试举几例：

或有善，或有恶，善者师之，恶者改之。¹²⁾（此处“善”即有善德之意，亦有善法之意。）

上帝见状对亨烈道：“汝言行中毒气尚存，犹未全消。恶将除去无非草，好取看来总是花。言语乃心之声，行为即心迹。若以善言待人，则为他人积善积德，所余福德累就大福，泽被自身。若恶言相向，则加害于人，则所余恶害酿成大祸，祸殃自身也。”¹³⁾（此处“善”即有善德之意，亦有善法之意。）

上帝曰：先天英雄时代，作孽求生。后天圣人时代，作善求生。以孽求生岂能长久？作善求生方得永恒。后天众生作善而生之度教定矣。¹⁴⁾（此处主要强调“善德”。）

12)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典经·行录』3-44(中文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第45页。下引『典经』同此版本。

13) 『典经·教法』1-11，第235页。

14) 『典经·教法』2-55，第258页。

能善用二十四种药者，谓万国之医也。¹⁵⁾ (此处主要强调“善法”。)

除了以上略举的几条直接用“善”之处外，『典经』中矣涉“善化”思想而没有直接用“善”字的地方不胜枚举，依据笔者前面对于“善化”思想内涵的分析，我们可以看出，这些地方尽管其没有明显使用“善”字，但是字里行间的“善化”意味非常浓厚，以下是笔者根据『典经』做的统计：

篇章名称	没有用“善”字、但是明显涉及“善化”思想的章节	统计
行录	1-11；2-15、22；3-8、44；4-29、34；5-38。	7处
公事	1-5、32；2-17、19、24；3-4、5、17、39。	9处
教运	1-2、9、16、17、26、32、34、36； 2-7、15、32、33、41、59。	14处
教法	总三章中的绝大多数小节几乎都在论述“善化”思想。	多数
权智	1-7、8、26；2-24。	4处
济生	医法医德与善法善德相结合论述。故其多数章节可以看作是具体行业和领域的“善化”思想。	多数
预示	6、7、8、9、10、11、13、17、55、72、81、82。	12处

通过以上统计，我们可以明显地感受到，这类内容在『典经』中具有举足轻重的地位，下面选取几例作为代表，余下的在下部分分析时根据需要再谈及：

上帝自幼品性圆满宽厚，聪颖过人，备受众人景仰。上帝少时喜植树，不折一草一木，连弱小的昆虫都倍加爱护，深怀好生之德。¹⁶⁾ (此处阐明上帝泛爱万物的善德与爱护弱小的善法。)

某日公又在川原赶集时与耶稣教人发生了争执，遭石块袭击，肋骨受伤，疗伤达数十日。公又深受其害，痛苦不已，上帝见状道：“汝曾伤人胸，险致人死命，念此当悔过之。今汝遭他人陷害，伤愈后欲复仇，然汝昔日所伤者之灵附于汝伤者亦欲复仇于你，汝所受害止于此万幸矣！而今当自解心结，惟视加害者如恩人，伤病方得痊愈。”公又心中甚是感佩，决意消解仇怨之心，来日相见善待仇人。数日后，川原耶稣教会的十二村牧师聚会，举行大传道会。上帝闻之，道：“十二村牧师所动，实乃为汝伤痊愈矣。”之后不久，公又伤口便痊愈。¹⁷⁾ (此处阐明善法及其效果。)

15) 『典经·预示』72，第341页。

16) 『典经·行录』1-11，第3页。

上帝曰：在后天，天下如一家，不倚威武，不施刑罚，和谐调合，依法理治苍生。为政者能以化权施政，无有偏差；百姓则远离冤屈贪婪之扰，得免生老病死之苦，长生不老；再无贫富不均，相互自由往来；天地不再高远，可任意驰骋天地之间；人类智慧开启，通达于过去、现在、未来以及十方世界，世间不再有水、火、风三灾，是为无上祥瑞和谐的地上仙境。¹⁸⁾（此处阐明超越了伦理道德层次的“善化”将使万事万物于不知中解怨受福，最终实现地上天国。）

除了直接用“善”表达“善化”思想以及虽不用“善”字但是明显阐释“善化”思想外，『典经』中多次使用较为隐秘的案例和语汇来表明“善化”思想，比如『典经·济生』中写道：

“上帝初施医法于花亭洞。李京五系花亭洞人。一日，与京五交情深笃的大院寺住持朴锦谷将京五患病之事禀告了上帝，并悬请上帝往诊。上帝察看了他的病情，发现左脚趾酸疼，腿从午后至清晨一直肿胀宛如粗大木柱。早晨消肿有所减退，到中午恢复原样，下午又重新肿起来。此病已持续三四年之久，如今已寸步难行，几近瘫痪。上帝为其诊脉，道：‘此乃怪疾也，万事皆可由小观大，吾以治此病为始，进治世间之病。’于是，上帝亲手按摩，全身乃至脚尖，并令京五收飞檐滴下的雨水擦洗患部。京五遵嘱，果然患疾很快痊愈。”¹⁹⁾

这段本是在讲上帝为李京五治病之事，看似平常，实际上另存深意，据笔者愚见，其至少存在两层暗指：

其一，上帝为人治病，不区分病人贵贱，不挑剔病情常怪，亲身为病人施治，不避脏繁辛劳（文中说上帝为病人“亲手按摩，全身乃至脚尖”，足见上帝真诚为病人），但凡品读其中滋味，自然一会感受到上帝之善德善行，进而崇敬上帝；二会升起效法上帝，学习上帝之善德的信念与行动。

其二，上帝不但为人身体治病，还治疗心理治病，进而以此为契机，谈

17) 『典经·教法』3-12，第261-262页。

18) 『典经·预示』81，第343页。

19) 『典经·济生』2，第301页。

及治疗天下疾病，这即为“万事皆可由小观大，吾以治此病为始，进治世间之病”。这里所点明的是，上帝心怀天下，其最终是想治疗世间，建设地上天国；此外，我们于此还可感受到上帝看问题的着眼点不仅超于常人，而且在善法上常常将大道理与小事情相结合，使人根据根性和水平各得其所宜，从而将善德与善法相结合以实现善化世人之目的。

这里仅举一例，以说明『典经』中不仅有明显论述“善化”思想的言语与案例，即便是在“山重水复疑无路”之处，如果我们用心去体悟，也会感受到其“柳暗花明又一村”中的“善化”旨趣。类似这样的地方在『典经』中也比较多，在这里就不一一列举分析了。

三、大巡真理会论及“善化”思想的缘由

大巡真理会的教理教义中为什么屡屡提及“善化”思想呢？在论述大巡真理会“善化”思想的主体内容之前，需要对其提出缘由及来龙去脉做一分析，如此方可谓之全面。据笔者看来，主要有三点原因：

其一，“善化”思想是大巡真理会之“建设地上天国”目的的重要内容。『大巡指针』指出：“目的为无自欺、精神开辟、人间改造、布德天下、广济苍生、辅国安民和建设地上天国。”²⁰⁾对这个目标进行分析，我们可以看出，其由无自欺、精神开辟、人间改造、布德天下、广济苍生、辅国安民、建设地上天国七个部分构成，这七个部分中至少有六部分，即“无自欺、布德天下、广济苍生、辅国安民、建设地上天国”等，不论是从字面上，还是从内在涵义上，一看就属于“善化”的内容；至于“精神开辟”根据『典经·教运』中论述，其与“无自欺”有着紧密的关联，²¹⁾而从『典经』之

20)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大巡指针』(中文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第4页。下引『大巡指针』同此版本。

21) 参见『典经·教运』2-32等中的相关内容。『典经』，第210页。

『行录』、『公事』和『教运』等章节中的不少相关事例也可看出，精神开辟实际上有着浓厚的“善化”意味，由此可见，“善化”思想能够成为大巡真理会思想的重要内容，是有根据的。

其二，大巡真理会目的的实现，需要其宗旨和信念来支撑。『典经』指出，大巡真理会的宗旨是“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此宗旨中，所谓“合德、调化、解怨”无疑具有“善化”的内义；此外，大巡真理会以四纲领和三要谛为信条，即“安心、安身、敬天、修道”和“诚、敬、信”，不用过多解释，四纲领与三要谛明显具有“善化”之义。

其三，大巡真理目的的实现，需要落实的道人的具体行为上。这里包括两个方面：第一，大巡真理会对道人修道与功夫的要求与规范之中，屡屡可见与“善化”相关的内容，比如：“布德，即以人道先导苍生以确立伦理道德之常道。”“布德，即广布道德之意。以谦虚和智慧之德，不徇私害公，开报恩之路。”²²⁾“布德，乃救济苍生为目的，以『典经』为基础，广播上帝大巡之巨救天下之真理，广结善缘。”²³⁾除了这些典型的语句之外，在『大巡指针』第二编有关“修道·工夫”的内容中，内含“善化”旨趣的要求比比皆是。第二，『典经』所载的上帝与道主赵鼎山的创教、宣教等具体实例也体现出来明显的“善化”原则，比如：“癸卯年即将过去，秋收结束后，农民们正忙于庭院平地上晒稻谷。上帝的父亲也在忙着晒稻谷，为驱赶飞禽而煞费苦心。上帝见状，劝其父亲道：‘鸟类啄几粒食都不予，又如何给得人吃？’”²⁴⁾这个实例中，暗含两种“善化”旨趣，一是上帝乃上善之表率与楷模，其行为处处体现出一种仁爱万物、无有分别心的上善至德；二是『典经』此处除了记录上帝之事迹外，还借机告知修道之人当效法上帝之德之行。这样的事例在『典经』等大巡真理会典籍中比比皆是，可见，“善化”思想不仅存在于大巡真理会的教理教义中，还处处体现在上帝和道主的行为中，学道者读至此处定会潜移默化接收并效行“善化”之思想与行为。

22) 『大巡指针』，第6页。

23) 『大巡指针』，第7页。

24) 『典经·行录』2-22，第24-25页。

四、大巡真理会“善化”思想的主体内容

笔者在第一部分中分析认为，完整的“善化”思想必须至少包括三个方面，即(1)伦理道德视角上的内在属性与功用，(2)既符合“为善之目的”又遵循“行善之法则”的践行方法和途径，(3)作为终极目标上的大善、至善、尽善等的追求与实现。这些内容在『大巡指针』第二编第一章第五节『遵照三大信仰原则修行』中也有集中体现，其“布德、教化、修行”三部体现出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也由此三个方面所构成。下面，笔者就依照这三个方面来分析一下大巡真理会“善化”思想的主体内容与理论架构。

第一，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首重伦理道德之善的培养与践行。『大巡指针』第二编集中论述了道人“修道与工夫”，其在第一章“正确的修道生活”中开宗明义地指出“修道乃遵行人伦、明道德，有违于此，岂能道通。”²⁵⁾以“道通真境”为宗旨之一的大巡真理会将修道的第一前提与要义概括为“遵行人伦、明道德”，首先点明了伦理道德之善的重要地位。

为什么要把伦理道德之善作为重中之重提出来呢？其说：“德乃人性之新脉，精神之原动力。此原动力之新脉在于道德伦理。”²⁶⁾从理论上说，宇宙万象之始源，生成变化之法则乃在于道，世界形成之后，生活于其中的人世究竟是和谐平等、充满温馨爱意，还是勾心斗角、处处尔虞我诈，则源于人性，换言之，世界之善恶形成实际起始于人心原初之善恶人性，因此，建设地上天国，也就是建设人间仙境，则首需从建设符合道德伦理之善心入手。

这个理论建立起来后，大巡真理会接着再三谈及修道之人在修道生活中务必要以此为指针，培养自己的道德善心，并以此作为布德教化的前提与原则，即如“一、布德，乃宣扬德化，故不得有损于德化。二、勿以不当

25) 『大巡指针』，第17页。

26) 『大巡指针』，第22页。

的言辞或处事损害德化。三、免受他人诽谤，即为布德之方便之一。”²⁷⁾

否则，不制止人心之恶性，那么不但修道无成，甚至会引起不必要的争斗，进而害人害己：“生活于地球的人类，所思有异而反目争斗。”²⁸⁾所谓“所思有异”指的就是人心自思私欲，只为自身着想，从而相互之间难以互恩共生，甚至争斗互害。长此以往，此怨若得不到解决，则最终令整个世界怨结而不得解，人们痛苦生活于其中：“至今三界之未得开辟，唯先天相克支配人间，世间累积冤恨，天地人三界相隔绝，世间灾祸横生之故也。”²⁹⁾

第二，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提出了践行伦理道德之善的方便法门。从理论上分析，首先，这些方面法门在目的上是以求善为最终目的，不可将行善作为实现私利的手段，否则，此善行就是伪善行，其比恶之危害更大，『典经』中记载这样一件案例：

进入十二月，上帝结束各类公事后，着手进行调整逆度之公事。京石、光赞、乃成等人赴大兴里，元一赴辛京元家中，亨烈、自贤前去了铜谷。留下文公信、黄应钟、申京洙，上帝说道：“京石平素极尽诚、敬、信，原想委以重任，但这一次既自请，只好如此了。”又道：“东学主张辅国安民，强调后天之事，实乃心中企盼成为王侯将相。如今非但未能如愿，由此送命者达数万人之多。这一怨直达苍天。若将这些怨神置之不理，则逆度于后天，致使政事日趋艰难。吾念于此，正欲确定众神灵解怨之头目，京石恰在此时言及十二帝国，是为自请也。京石之父曾为东学骨干，后被俘而死。京石本人又曾担任东学的一个地方总代。从今往后，东学神灵全部托付于京石；如此，未成王侯将相之冤可解矣。”³⁰⁾

上帝在此借助李京石自请一事引出当年东学表面主张富国安民，实际上乃是出于企盼成为王侯将相的私心私利，由此不但私利没成，还使数万人

27) 『大巡指针』，第8页。

28) 『典经·公事』3-5，第125页。

29) 『典经·预示』8，第322页。

30) 『典经·公事』2-19，第117-118页。

送命，可见，以私利为目的所谓的善行不仅不是善行，其危害还超过了恶行，这是大巡真理会“善化”思想中非常深刻的一种理念，具有巨大的价值，值得我们进入学习借鉴。

其次，端正了善之目的后，行善之法是否得当，也是值得重视的一个问题。因为，有好的善良愿望，不一定能够取得善的实际效果，善行与善果之间不一定能够直接画上等号，为此，为了保证善行能够促成善果，必须保证行善之法得当。行善之法，就是践行善的方法和原则，无论是个体行善助人、提升自身，还是劝人为善、宣化世界，均属于此类。从大巡真理会的典籍来看，这种方法和原则，主要包括两个方面，一是具有普遍意义的方法，二是具体到各行各业的方法。

所谓具有普遍意义的善行之法，是从善化之法的普适性而言的，它站在方法论的高度上指向那些在各个领域和层次都具有普遍意义的劝善行善、祛恶弃恶的方法和原则。对于这种善行之法，大巡真理会主要提出了以下几种：

(1) 为善但求利他，不可贪名：“上帝纵使施助于人，其人少有察觉。亨利对此一向不以为然，遂道：‘先生可助其夫妻喜得贵子，却不令其知所故，不知何故？’上帝道：‘吾但行所行者耳，与知会他人并无牵干。令人知之者，小人作为也。’”³¹⁾“上帝曰：万事不应敷衍于表面，更应致力于无名积德。德行之中，以不为人知的无名之德为大。”³²⁾这条善化原则要求在为善过程中，不可贪求名利，只以利他为目的，此原则可以简称为“无名积德”原则。

(2) 为善需视贵贱平等，不可爱尊嫌卑。这一条善行法则，『典经』中多处提及，诸如『教法』第一章第2、9、10、24小节和第二章第11小节、第三章第1、4小节以及『教运』第一章第32小节等等，这条善化原则要求在为善过程中，不可以服务贵高者为行善对象，而应首先同情、帮助卑弱者，上帝即是如此，其“每对待贫贱之人时必用尊称”³³⁾，这一点即如『典经』所言：

31) 『典经·教法』3-11, 第261页。

32) 『典经·教法』2-18, 第250页。

33) 『典经·教法』1-10, 第234页。

“上帝曰：当今乃解冤时代。贵两班而分别尊卑，犹如掘祖坟而毁族。故速废两班之因习，善待贱人，冤方得解，迎和平盛世。”³⁴⁾

(3) 为善需掌握时机，因人而异。这条善化原则指的是由于行善之对象具有差异性和多样性，因此在行善施教的过程中，要采取适合对象的恰当方法。这两暗含两种意思，一是注意劝化的时机：“人事自有其机，天时自有其时，应待时择机行事。若时机勉强，将遗祸天下，夺亿兆苍生之性命。岂可猝行之！”³⁵⁾二是注意劝化对象的接受程度，以防止善化之法失当：“当依器量而予，否则器小者胀，器大者饥。”³⁶⁾

(4) 为善需多种方法并用，尤其是注重言语之善，不可恶言恶语，『典经』中多处提及“善言以待可积德”³⁷⁾，“吾言乃药也。既能以言语慰藉人心，也能以言语拂逆人心；既能以言语治愈病人，也能以言语解脱罪业，此吾言乃药之故也。忠言逆耳利于行，吾不语妄言，当信吾之所言”³⁸⁾等等，足见大巡真理会对于善言之法则的重视。其认为，善言作为善化原则之一，不仅与道人之心性和品行相矣，而且从后果上看，善言可积德，恶语则灭身：“言语乃心之声，行为即心迹。若以善言待人，则为他人积善积德，所余福德累就大福，泽被自身。若恶言相向，则加害于人，则所余恶害酿成大祸，祸殃自身也。”³⁹⁾

(5) 为善得善报、为恶得恶报之善恶感应原则。善恶感应原则是大巡真理会“善化”思想的重要原则之一，据笔者统计，『典经』中有十余处直接论及到善恶感应原则⁴⁰⁾，其善恶感应原则不仅指出人之善恶会受到神灵的监察与奖惩，还指出，人之善恶行为会得到相应的善报与恶报：“犯大罪

34) 『典经·教法』1-9, 第234页。

35) 『典经·公事』2-24, 第119页。

36) 『典经·教法』2-54, 第258页。

37) 『典经·教法』1-26, 第238页。

38) 『典经·教法』2-1, 第247页。

39) 『典经·教法』1-11, 第235页。

40) 参见『典经』之『行录』5-38以及『教法』1-11、19、25、29、2-17、20、30、44、50、3-24、44等处。

者遭天譴；犯小过者则遭神罚或人罚。”⁴¹⁾“常言道无隻方得好过。是为无有冤恨之隻，生活方得平顺之意。因此，勿积怨恨之隻，所积之冤隻报复故也；勿怀恨他人，人或不知而其神察知则怀冤隻而报故也。”⁴²⁾

(6) 为善当心慈众生，泛爱万物。『典经』中不但从理论上指出，“解怨相生”真理所面对的对象乃是宇宙间古往今来的一切物事，故对每一物事都需以善来教化、进而实现地上天国之目的，而且以上帝之具体事迹来说明，为善者当需善对虫鱼鸟兽、天地万物，『典经』中记载了上帝深怀好生之德，倍加爱护弱小的昆虫，帮助鸟兽解怨、劝解斗牛不爭等等实例，以此为中心慈万物这一善化原则做了好的榜样。

除了以上六大具有普遍意义的善化原则外，大巡真理会还提及了诸如不可诽谤他人、以德报怨、和为贵反争斗、自省忏悔等其他多条原则，这里限于篇幅，就不一一举证了。

善行之法除了包括具有普遍意义的善行之法，还包括具体到各行各业、各个具体领域的方法，这种具体的善行之法着眼于具体的行业和领域，举一反三式地指出其中的善化之法。具体来说，大巡真理会提及的具体的善行之法有：(1)家庭方面。对于家庭中所行之善法提及的比较多，涉及到夫妇之间、父子之间、兄弟姐妹之间等等，其中值得一提的是孝敬父母的善行，单单『典经·教法』中就至少有4处提及此法⁴³⁾，以此呼应『大巡指针』第二编第一章指出的“修道乃遵行人伦”，该善法要求恭敬父母、赡养父母、解父母之怨等等。(2)社会人际关系方面。大巡真理会提出了与人相处，不可欺骗人，不可贪利、争斗，应该与人和平相处、礼遇他人等行善方法：“勿以不义诱他人子弟，勿与他人争斗，勿蔑视贫贱之人，勿贪恋他人财宝，切记宝(寶)字中自有狼狽之贝也。”⁴⁴⁾“上帝曰：诸君时常应求和平。若尔等内有争斗，则外必生大乱矣。”“面对好寻衅争斗人，心

41) 『典经·教法』1-32, 第239页。

42) 『典经·教法』2-44, 第256页。

43) 具体参见『典经·教法』第一章第40、41、44小节以及第三章第15小节等处。

44) 『典经·教法』1-38, 第240页。

平气和认输者乃上等人也，乃多福之人也。而激愤难平、与之争斗者乃下等人，难获神明之助，难以成事。”⁴⁵⁾ (3)教育方面。大巡真理会指出，教育当以善德之养为首要教育目标，其指出“世间传教授『通鉴』于不谙世事孩童的习俗，是为自幼以是非之道培养其品性。此乃雄霸之术也，岂能称其为妥当之举？”⁴⁶⁾在这里，『典经』主张，是非之道的核心属于雄霸之术，而非善化之法，长此以往，会让孩童失去善爱之心，这是因为“济生医世者，圣人之道也；灾民革世者，雄霸之术也。天下受雄霸之苦久矣，故吾将以相生之道化民靖世。从今之后汝当正心，欲成就大人者积好生之德，岂可杀害亿兆苍生而求一己之生？”⁴⁷⁾除此外，大巡真理会还指出，世间教育在育人时深陷追求功利之中，失去了求善之端的，后果令人担忧：“世间广泛设学教人，旨在天下广播文明，使三界渐趋完善，以解神人之冤。然当今之学校教育，令求学者深陷官职俸禄等卑鄙功利之中，故修道之人只能成道于局外。”⁴⁸⁾

除此之外，大巡真理会还提出了诸如戒赌戒色、珍惜生命、正确对待旧礼法等具体的善行之法，有兴趣的读者请自行去查阅参悟。

第三，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提出了作为终极目标上的大善、至善、尽善等的追求与实现。尽管大巡真理会提出其善化思想乃是着眼于伦理道德之善，但是从其字里行间，我们还是可以对之做出这样的解读：即其善化思想所围绕的核心——“善德”由此扩充而来的“善行善法”从终极意义上来看，已经超越了伦理道德层递。

『大巡指针』指出：“本会将为世人指明共同建设未来仙境世界之途径，称布德。”⁴⁹⁾可见，与善化语义相接近的“布德”指的是“为世人指明共同建设未来仙境世界之途径”，由此可以推论出，站在善化的视角上，“善德”即

45) 『典经·教法』1-53、55，第243、244页。

46) 『典经·教法』2-25，第251页。

47) 『典经·教运』1-16，第152页。

48) 『典经·教运』1-17，第152页。

49) 『大巡指针』，第22页。

为建设未来仙境世界之途径。根据『典经』及『大巡指针』等的论述，这种途径首先具有伦理道德之一是毫无疑问的，但是如果从宇宙化育之背后的终极根据来看，其就超越了理论伦理道德的层次，即这种“建设仙境的途径”无论从其理论依据和其终极目标来看，都具有更高层递之意义。具体来说：

首先，『大巡指针』指出，“道乃宇宙万象之始源，生成变化之法则”，“宇宙森罗万象皆在道中生成和存在”⁵⁰⁾，由此我们可以做出这样的推论，由“道”而来的善德（即建设提上天国之途径）以及“解怨相生、报恩相生”真理则表达出一种层地境界上的终极性、与道合一性，由于道具有世界生成变化之本根本源、根本法则的地位与特性，所以，以“善德”为核心、以“善行善法”为法门的“善化”思想可以看作是与道合一的、应然的行为、思想及其外在的表现方法。当站在这个层递上来审视“善化”思想的理论起点时，“善德”所表征的是由“道”而来的自然而然的法则，而非仅仅作为伦理道德之需要而有，以此行世的道人或修行者是出于遵循大道法则而如此践行，而非仅仅处于伦理意义上的奉善之诉求与目的，可见，其显然具有超越于伦理道德的高度。

其次，『大巡指针』指出，大巡真理会之目的在于通过匡救天下、广济苍生实现人间乐园、俗世仙境、地上天国的建设。从伦理道德层递来看，匡救天下、广济苍生不仅属于伦理道德的重要内容，而且是最高、最大、最广之伦理道德境界的实现。然而，除了从这个视角来解读外，我们还可以从另外一个角度来认识，即由于大巡真理会认为世间没有成为地上天国的原因在于其背后存在“怨患错乱”，由此提出建设地上天国的主要途径在于“解怨和报恩”，这就说明，作为实现地上天国的主要途径——“解怨相生”和“报恩相生”以及由此而产生的匡救天下、广济苍生等具体方法就不是从现世伦理而来，而是从宇宙背后失序的根由而来，可见，这些“解怨途径”超出了伦理道德的理论框架，其就不是仅仅出于伦理道德的目的，尽管我们也不反对其具有明显的伦理意义。由此，作为顺承大道而来的“善德与善

50) 参见『大巡指针』，第22-23页。

法”就具有了更为终极意义的理论依据，其在善利万物过程中应该连“追求为善”这种观念也不存在，一切都是顺道而来，自然而然。

此外，我们再来看看何为“地上天国”？大巡真理会的典籍中分多处对此做了说明，大致包括无私欲无痛苦、无贵贱尊卑、无不平等、无怨以及由怨导致的争斗、衣食充足没有饥馑等：“在后天，天下如一家，不倚威武，不施刑罚，和谐调合，依法理治苍生。为政者能以化权施政，无有偏差；百姓则远离冤屈贪淫之扰，得免生老病死之苦，长生不老；再无贫富不均，相互自由往来；天地不再高远，可任意驰骋天地之间；人类智慧开启，通达于过去、现在、未来以及十方世界，世间不再有水、火、风三灾，是为无上祥瑞和谐的地上仙境。”⁵¹⁾作为实现“建设地上仙境”的包括“善化”思想在内的诸种方式和途径，一方面要突出伦理道德教化的意味，但是另一方面，在建设地上天国的过程中，真正的“善化”还需要尽可能隐于具体的道德说教中(上帝多次称之为无名积德)，也就是尽管时刻施恩，但是不要让百姓处于感恩之中，时刻需要想着报恩，要让百姓在潜移默化之中，在日用受益而不知之中，渐渐达到人间仙境、地上天国之最终实现。当达此天下和美、地上仙境建成之目的时候，处于其中的人们相互之间日日施以善德、日日得益善恩，他们觉得这是一件自然而然、本来就是如此的事情，而非时刻记着要报还别人恩德，时刻处于促使自己行善之中。由此，这个视角上的“善德与善法”也具有了超越伦理道德教化层递的高度。

应该说，以上三大内容搭建起了大巡真理会“善化”思想的基本理论框架，让我们对这一思想的主题内容具有了一个较为全面的认知，但是，这绝不是说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就到此为止了，其实，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还有许多值得深究并践行的地方，这些就留待以后再做进一步研究。

51) 『圣经·预示』81，第343页。

五、结语

大巡真理会信仰“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其教理教义、入世理念、施教法门、修行法则等中具有明显的“善化”(“善”化世人)思想。其以『典经』为代表的典籍中论及“善化”思想的材料几乎俯首可得，以这些材料为依托，大巡真理会围绕善之伦理道德义、善之超伦理道德义以及具体善化之法全面论述了其“善化”思想。纵观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其即有典型的、神圣性的宗教道德特征与明显的、生活气息很浓的社会伦理特征，又有超越伦理、追求尽善的终极关怀特征与理论深度。

从这个角度来说，大巡真理会的“善化”思想不仅仅具有理论研究的价值，更具有实际践行与应用的巨大意义，也就是说，研究大巡真理会之“善化”思想一方面可以有助于我们从另外一个视角来深入了解大巡真理会的宗旨和特色，另一方面，其“善化”思想中所透露出来的智慧、精神与可操作之方法，对于今天社会慈善与社会治理的完善与发展无疑具有积极的借鉴和推动意义。

【参考文献】

- 『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大巡指針』，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辞源』1-4合订本，北京：商务印书馆，1988版。
- 王弼，『老子注』第8章，『诸子集成』第三册，北京：中华书局，1954年版。
- 李维琦标点，『国语·战国策』，长沙：岳麓书社，1988年版。
- 白川静著、苏冰译，『常用汉字解』，北京：九州出版社，2010年版。
- 程树德，『论语集释·八佾下』第一册，北京：中华书局，1990年版。
- 周秉钧，『白话尚书·汤诰』，长沙：岳麓书社，1990年版。
- 汉语大字典编辑委员会，『汉语大字典』，湖北此书出版社、成都：四川辞书出版社，1992年版。
- 许慎撰、段玉裁注，『说文解字注』，郑州：中州古籍出版社，2006年版。
- 黄寿祺、张善文，『周易译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版。
- 于国庆，『老子“上善若水”论的几点思考』，『老子学刊』第一辑，2012年版。

■국문 요약■

대순진리회의 ‘선화(善化)’사상에 대한 연구

위궤칭(于國慶)

사천대학 · 부연구원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선화(善化)사상을 살펴보고 그 주체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전경』에서는 어떻게 선을 드러내고 행하며 더 나아가 선으로 중생을 교육하고 천하를 교화하는가 하는 선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곧 대순진리회의 핵심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선화’사상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의미에서 만물을 도와서 교화시키거나 만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선(上善)의 덕 외에도 상선의 법이 필요한데, 이는 ‘선을 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법칙을 지키는 실천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셋째,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선’은 윤리도덕의 단계를 초월한다.

이에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난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는 모두 ‘선화’의 내용에 포함된다. 둘째, 대순진리회 목적의 실현은 그 종지와 신조에 의거하는데, ‘합덕·조화·해원’과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에도 ‘선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도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데, 수도와 공부의 필요성과 규범 속 그리고 상제와 도주 조정산(趙鼎山)의 창교(創教)나 선교(宣敎) 등 구체적인 실례에서

도 ‘선화’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전형적이고 신성한 종교 도덕적 특징과 일상생활의 의미가 담긴 사회 윤리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윤리를 초월하고 진선(盡善)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의식과 이론적 깊이가 있다.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과 이론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서는 무엇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 배양과 실천을 중시한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윤리도덕의 선을 실천하는 법문(法門)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수도의 최종 목적인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 등을 추구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화사상이 나타내는 핵심인 ‘선덕’과 이로부터 발전된 ‘선행선법(善行善法)’이 결국 윤리도덕의 차원을 초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전경, 선화사상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24일~2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